

한국과 중국의 ‘동아시아담론’:

상호연관성과 쟁점의 비교 및 평가*

고 성 빈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아시아담론은 서구중심의 근대주의적 발전주의에 대한 토착적인 대안 즉 동아시아의 자주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담론에서의 동아시아의 개념은 냉전시대의 의미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이다. 동아시아공동체구상에서 내포하는 동아시아의 의미는 지역의 중심국에 의해 주도되는 개념이 아닌 주변국이 상상하고 제안하는 탈중심의 동아시아개념이다.

그러나 지적인 영역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사회적 실천의 영역으로 발전을 추구하려는 일종의 상상의 프로젝트로서 아직은 동아시아각국의 구체적인 정책에서 지역적 차원의 실천수준으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자연적으로 비판론자들은 담론이 단지 현상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한다.

동아시아담론이 단순히 정치경제적인 상상이 아니고 지적, 문화적, 인간적 교류까지를 망라한 복합적 상상이라면 지역국가 간의 상호 수평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국가의 경제 발전과 제도의 투명성, 시민사회와 지식인간의 대화와 활동의 네트워크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담론의 주창자들은 탈국경적인 시민연대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개별 국가의 지식인 그룹과 민간운동의 주체가 직면한 모순이 미국 및 지역의 중심 주변국가들 사이에 연관된 문제이고 그 영향이 지역국가의 민중에게 미치는 만큼 그 해결도 단순히 일국내부 민간단체의 사회운동 내지는 대정부 투쟁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연대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동아시아의 균형과 지역 국가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수평적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주제어: 동아시아담론, 비판적 지식인, 탈근대주의, 탈중심주의, 동아시아신질서구상

*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비평에 감사드립니다.

I. 서론

1990년대 초반 이래로 동아시아에서는 지역주의에 대한 자각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류는 지식계에서 동아시아담론(East Asian discourse)으로 발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담론은 탈냉전시대 세계의 변화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대응이자 대안의 모색이다. 즉,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동아시아가 과거에 서구적 근대성에 지나치게 집착해 온 것에 대한 자성으로 문화와 사상에 대한 자주적 태도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서구가 주도하는 전지구적 자본주의화 혹은 세계화의 주요 이념인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탈근대, 탈식민주의적인 지적인 모색과 토착적발전의 대안을 추구하게 하였다.

본 고에서는 동아시아담론을 제기하는 주체가 한국과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담론을 전개하는 지식인들은 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과거 권위주의체제에 맞서 투쟁하였고 2000년 6. 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¹ 또한 탈냉전과 1997년 금융위기 이래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추수를 비판하고 동아시아연대에서 대안 찾기를 시도하는 지식인 그룹을 지칭한다.

중국에서도 동아시아담론의 주요참여자인 왕후이(汪暉)(왕후이와 이육연과의 대담, 2000)는 자국의 지식계에서 “자유주의자”와 “신좌파”라는 이원적 분류를 거부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사상적 조류에 있는 지식인들을 “자유주의 좌파” 혹은 “비판적 지식인”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²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동아시아담론의 주요논지도 좌우파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단순히 분류되기 힘들다고 본다. 오늘날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는 이미 세계화와 신자유

1. 한반도 “분단체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백낙청(1994; 1998; 2006).

2. 이외에도 중국에서 신좌파로 분류되는 인물은 崔之元, 韓毓海, 何清連, 劉康, 李陀, 戴錦華, 甘陽, 王彬彬 등이다. 중국의 신좌파에 대해서는 이육연(1999: 199-222).

주의적 발전주의가 이미 주류의 이념과 국가발전전략으로 등장하였으며 양국의 지식인들은 이념적 성향을 불문하고 개방과 발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국가발전이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동아시아담론의 주요 지식인들을 좌-우파 이념을 초월한 “비판적 지식인”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다음 같은 사실에 특히 관심을 두고 한국과 중국의 동아시아담론의 생성배경과 상호연관성 및 주요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한다.

첫째, 동아시아담론의 전개과정에서는 주로 한국에서 중국의 지식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³ 특히 담론이 “동아시아신질서구상”에 대한 주제로 함축될 때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식계에서는 동아시아를 주제로 하는 논의가 미약하거나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지리적, 문화적 배경에서 “아시아” 개념이 앞서고 있으며 담론의 맥락에서의 “동아시아” 개념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그들은 과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한국의 담론에서 주로 강조되고 있는 동아시아신질서구상에서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공통적으로 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논리에 회의적이다. 즉 사회의 빈부격차와 중심주변 국가간 격차만 증대시키면서 국내의 기득권자와 중심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지속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지역주의에서 발전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양국의 담론주의자들은 21세기 국민국가(the nation-state)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국민국가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를 나타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다른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국민국가의 실제적 개념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의 지식인들은 네트워크로

3. 필자의 논지와 일맥상통하게 장인성(2005: 4)은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동아시아에 덜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론에 더 적극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서의 국민국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서도 한국의 담론은 국민국가간 수평적 관계에서의 종합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데 반해 중국의 담론은 국민국가의 주권을 중시하면서 정치경제적인 협동체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담론을 비교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동아시아담론에서 보면 지역의 중심국과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위계적”(hierarchical)인식보다는 “수평적”(horizontal) 인식을 배양하는 것이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담론을 비교함으로써 수평적 시각의 발전과 그 가능성에 대한 미래의 담론을 모색하려고 한다. 또한 동아시아 담론은 주변부에서 중심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실험적 시각을 추구하고 있다. 동아시아연대가 주변(한국 등 약소국)에서부터 중심(중국, 일본, 미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양국의 담론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즉 양국의 지식계에서의 동아시아 담론은 동아시아지역의 발전에 대한 양국의 공통적 이해를 증대하고 상충되는 의견을 줄이려는 노력에 많은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II. 한국과 중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한국과 중국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개념정의는 일치하지 않는다. 양국의 지식인들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그들의 동아시아담론의 특성과 상이점이 잘 들어난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한국과 중국 지식계에서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일종의 서구의 창안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딜릭(Arif Dirlik)의 견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이란 지역이 팽창하는 유럽세계경제의 역사적 창조물이며 아태가 하나의 지역으로 성립하는 과정도 유럽의 창안물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축되는 모순구조를 강조하는 데, 이 모순구조는 “지역현실을 구성하는 인간활동의 공간적 시간적 움직임들을 물리적인 범주들 속에다 담아 들이고자 하는 하나의 추상적 표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포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태지역이 역사적 산물이자 세계체제적 산물이며 더불어 아시아적 지향들이 뒤엉킨 구조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부단히 변화해온 현실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며 그 경계와 구조가 끊임없이 유동적이었을 것이다(딜릭, 1995: 41-75). 결국, 이 논리를 적용하면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명칭과 개념도 일종의 서구의 “오리엔탈리즘”(Said, 1979)적 인식에서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는 오늘날 지구상의 지역구분은 지리학적 이유가 아닌 오직 팽창하는 유럽의 지리, 문화적 부산물이며 2차 대전 이후 미국패권이 조성한 세계에 대한 지정학적인 구획화의 결과이다(이수훈, 2004: 224).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지역”은 강대국들의 “지적범주”이거나, “정치적 고안” 아니면 “문화적 창안”이었으며 이런 용어들에는 공통적으로 이전에는 인식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의 일부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베어있다.⁴ 따라서 2차 대전 이후 지역연구가 등장한 후 미국이 세계적 패권국으로 등장하면서 특히 비서구의 “지역”들은 미국의 패권적 지배와 통제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구획되고 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담론에서는 서구 강대국에 의해 수동적으로 정의 내려진 동아시아개념을 거부하고 동아시아에 의한 동아시아개념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명섭은 이렇게 새로운 동아시아개념의 모색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가 “극동”이나 “대동아”라는 개념을 밀어내고 정착되는 과정은 세계적 수준의 냉전 및 동아시아의 열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 즉, 극동에서 동아시아라는 변화는 유럽중심적 권력구조에서 미국 중심적 “지식권력구조로의 전이”를 의미하는 데 그 과정에서 유럽이 만든 극동이라는 개념과 일본이 만들어낸 “대동아”라는 개념은 사라지게 되었다. 지리적으로 동아시아는 동남아와 동북아를 묶는 프로젝트로서 동아시아라는

4. 실제로 아프리카의 역사학자 V.Y. Mudimbe가 『아프리카의 발명』을 통해 이를 적절히 지적하였다(이수훈, 2004: 225면에서 재인용).

개념은 앞으로 더욱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 이듯이 동아시아지역도 상상의 공동체일 수 있다면 동아시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국주도의 제국적 평화를 넘어서 국제적 평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주의라는 함정을 피해서 초국적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한다(김명섭, 2005: 296-298). 이에 대한 답변은 탈냉전 시대의 초국적인 신질서 구상으로서의 동아시아공동체를 수립하려는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그의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중심 주변구도를 넘어선 새로운 동아시아로서 동아시아담론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동아시아담론에서는 이러한 탈중심적인 수평주의적 동아시아 개념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한국의 동아시아담론에서의 동아시아개념은 역사적으로 중국중심의 중화경제권,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2차 대전 이후의 미국중심의 군사안보적 패권구조, 동아시아의 신흥산업국(NIEs)의 경제적인 개념 등의 범주를 넘어서려는 특성이 잘 나타난다.

민두기의 조망에 의하면 동아시아는 21세기의 “새로운 지적인 상상의 공간”(a space in a new intellectual imagery)이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즉 동아시아는 단순한 아시아의 동부를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 “지향을 가진 지역질서”라고 하는 구상으로서 원래의 지리적이고 미국의 고안이었던 개념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민두기, 2002: 39). 이러한 정의는 “동아시아를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의 행위에 따라 유동하는 역사의 공간”으로 파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백영서, 2004: 14). 이러한 개념은 지역을 구성하는 인간의 활동에 비추어서 지역의 경계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지난 날 영위해 온 역사적 경험과 현대에 들어와서 두드러진 민주화와 경제발전, 사회변화, 이에 따른 지역정체성의 자각 등이 라는 인간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늘날의 “동아시아”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를 이렇게 정의하면 탈냉전시대 미국패권체제의 퇴조와 중국의 등장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움직임에 지역적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새로운 동아시아지역의 가치관과 역사인식을 세우려는

지역운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상은 서구의 근대주의에서의 지역개념과 미국주도의 동아시아의 냉전적 조망 및 구조를 탈피하면서, 또한 중국과 일본의 대국주의(혹은 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생성된 것이다.

중국의 동아시아개념은 서구의 창안으로서의 지역개념을 거부한다는 면에서는 한국과 공감을 나타내지만 다른 면도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지만 중국지식인들의 동아시아개념 형성과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에 구체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지식인들과의 교류에서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지식계가 “중국 대 서구”(China vs. the West structure)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경도되어 아직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위계적 인식에 사로잡혀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서구만큼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중국적 세계관의 표현이다(Chen Kuan-Hsing, 2002: 241).⁵ 최근에 한국(및 여타 동아시아 국가) 지식인들과의 교류가 빈번해 지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접하고 상호토론을 전개하면서 드디어 그들도 아시아와 분리된 동아시아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본고는 주장한다. 다음 같은 논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인 왕후이는 동아시아란 용어보다 중국에서는 아시아란 용어에 더 친숙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아시아,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 형성된 개념이라서 서로 다른 역사적,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아시아개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분석하면서 19세기 유럽중심적 사상에서는 유럽의 세계사라는 역사의 틀 안에서 아시아개념을 세웠고 이로 인해 아시아란 범주를 유럽중심의 역사적 목적론 속에 편입시켰다고 한다. 러시아와 중국혁명은 사회주의운동과 민족자결권이라는 틀 속에서 아시아혁명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의 제국주의이념에서는 중국과 한반도 그 밖의 지역을 동양 혹은 동아시아란 범주에 넣어 이들 사회의 실체의 주체성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왕후이는 중국의 경험에서

5. 중국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대국주의”와 “위계적 인식”에 대해서는 백영서(2000b: 48-66); 고성빈(2006: 108-112).

보면 동아시아라는 용어는 흔히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의 역사를 상기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결국 분석이 없이 아시아와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혼용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중국은 지역이 광활하고 다민족, 다문화의 사회이므로 아시아라는 의미가 동아시아보다는 훨씬 알맞은 개념이라고 주장한다(왕후이, 2003b: 243-244). 그러면서도 그는 아시아라는 개념과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서로 대립시킬 이유는 없다고 하고 있다(왕후이, 2003b: 245-246).

이러한 그의 논의를 잘 대변해 주는 것은 중국의 학자들은 여전히 “동아시아담론”이라는 용어보다는 “아시아담론”이라는 용어를 더 즐겨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데 첫째로, 그들은 여전히 “동아시아”라는 호칭과 개념에 생소함을 느끼고 있다. 둘째로, “아시아”라는 개념에 동아시아를 함축적으로 포용하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중국의 동아시아론을 구상하는 쑤거(孫歌)는 왕후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동아시아를 조망하고 있다. 그녀는 “기능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동아시아란 실체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으며 탈냉전구조 속에서 동아시아인들은 긴급히 연대를 하지 않으면 미국에 대항할 수 없다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孫歌, 2002)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동아시아 인식에는 동아시아를 일종의 미국과 서구 등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론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즉 동아시아에 관심을 두면서도 “중국 대 서구”라는 이원적 세계관의 영향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는 흔적을 잘 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면은 중국의 동아시아담론의 특성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조망이 한국과 다른 것은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왕후이가 언급한대로 중국은 지리적으로 광대하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행동반경을 가진 한국과는 이웃을 보는 시각에서 동아시아를 넘어선다. 또한 중국은 오랜 기간동안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전체에 걸쳐서 중심국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한 부분인 동아시아에 대해서만 특별히 집중된 인식을 가질 수 없었다.⁶ 이에 대해 쑤거는 중국인

6. 리따자오(李大釗)와 쑤아산(孫逸仙)의 “범아시아주의”선언에서도 이러한 아시아의 중심으로서의 중국이라는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중국중심적 사고에 대한 분

이 동아시아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중국을 아시아의 중심, 최소한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를 논하지 않는 것은 탈아시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라는 모호한 말이 가리키는 바에 내재화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孫歌, 2000: 57)라고 하고 있다. 결국 서구의 중국침략 이래로 오늘날까지도 중국은 “중국 대 서구”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여전히 세계를 조망하면서 동아시아는 중국이 서구에 대항하는 구조에서 하위체제인 종속변수로 보는 경향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지식인들이 중국과는 달리 아시아보다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은 근대 이후의 세계체제가 한국, 중국, 일본에 영향을 미칠 때 동아시아구조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아시아구조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그 성격도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동아시아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지식계에서는 한중일 3국의 상호관계성은 동아시아라는 틀 안에서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국, 중국, 일본을 그 주요부분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영위된 역사적 경험은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보면서 그것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정리하여 그 실체에 접근하고 앞으로의 발전전망에 시사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근래에 동아시아담론이 생성되면서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으로서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포함이 되는 상상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서 구체적으로 들어난다. 담론의 주장과 일치하게 동아시아공동체는 아세안+3(한중일)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상상의 공동체로서 서구와 대비되는 측면과 탈냉전시대의 탈중심탈서구적 발전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라는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비판적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에 대한 조망과 개념의 미묘한 차이가 그들의 “동아시아담론”의 특성에서

석으로는 고성빈(2006: 108-112).

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III. 한국과 중국의 동아시아담론의 특성

1. 동아시아담론의 이념적 생성동기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모두 공통적으로 동아시아담론은 서구의 발전모델이 역사의 목표이며 국민국가가 궁극적인 주요단위인 “근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일종의 “탈근대주의”(post-modernism)적이고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적인 지적정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서구적 지식패러다임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주적인 인식과 지식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전지구적 자본주의화와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를 그대로 추수하는 사조와 정책은 담론주의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인 정향에서 담론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근대성에 대한 거부와 대안 찾기가 사조의 출발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혜정(2004: 15-23)의 문제의식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녀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성찰 능력”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식민지시대에 자아성찰이 있었는데 식민지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전반적이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 서있는가”라는 자아성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아성찰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서구라는 절대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 사회과학을 하면서 쓰는 언어는 궁극적으로 서구사회의 변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서구 학자들은 그들의 논의를 보편적 이론과 조망으로 여기고 있는데 한국은 그것들을 배우기에 급급하다고 한다.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언어를 가지지 못하는 한국사회, 자신의 사회를 보는 이론을 자생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한국사회”를 아직도 “식민지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녀는

“식민지성”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현상을 뜻하기 보다는 우리사회에서 이렇게 “지식과 삶이 서로 유리되어 겉도는 현상”을 뜻한다고 하고 있다.⁷

이렇듯 한국의 지식계는 서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문의 식민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망을 다시 확대 해보면 동아시아의 중심부인 중국과 주변부인 한국과의 상호관계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지식계에서 생성되는 지식은 중국 지식계의 관심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은 양국의 동아시아담론의 특성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동아시아담론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탈서구와 탈중심, 탈식민화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동아시아담론이 그 전개과정에서 “토착성”(aboriginality)과 “주변부의 시각”을 강조하면서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식민지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잘 나타낸다.

둘째, 탈냉전 시대를 유동적인 상황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에서 출발 했다고 볼 수 있다. 탈냉전기의 유동적인 상황은 미국패권구조의 쇠락으로 인해서 냉전시대의 환경이 유동적인 균열을 맞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과도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탈냉전의 동아시아가 순조로운 번영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유럽과는 달리 탈냉전시대에도 냉전의 그림자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냉전시대에 근대화의 최종목표였던 “강한 국민국가주의”와 “부국강병”의 이념이 아직도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으며 거기에 역사적 갈등도 아직도 미해결인 채로 동아시아의 연대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전지구화의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추세가 혼합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서구근대성과 냉전의 유산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발전추세가 혼재해 있는 현상은 지역발전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동아시아담론은 동아시아신질서 구상을 주장하면서 지역단위의 창조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동아시아협력모델이

7. 인류학자이며 페미니스트인 조혜정은 동아시아담론의 지식인 네트워크인 Inter-Asia Cultural Studies Society(IACSS)와 이 기관의 주요 저널인 Inter-Asia Cultural Studies(IACS)의 간행에 참여하고 있다.

없이 동아시아에서 냉전보다 더욱 심각한 대립⁸이 올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의 표현이다.

백영서(2005: 25-26)는 이러한 동아시아의 유동적 상황에 대해서 탈냉전의 동아시아의 균열은 신질서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고 동아시아질서의 미래가 당분간 미국의 일극적 주도권과 동아시아의 다극적 지역통합 노력이 타협 경쟁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백낙청(2004: 24-25)의 견해에서도 이러한 동아시아의 상황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동아시아를 지금까지의 개발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대안적 패러다임이 가능 할 수도 있는 거대한 실험장으로 조망하고 있다. 탈냉전이 초래한 위기국면에 들어간 세계체제에 대한 동아시아의 창조적 대응을 모색하면서 동아시아가 가장 활발한 자본축적지역인데다가 지역 내에 합의된 모델이 없어 유동적이며, 종전의 개발패러다임으로는 생태계 재앙의 위험이 크고 문명의 유산까지 풍부하다는 점에서 세계의 위기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에 드물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진단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딜릭의 “전지구적 근대”가 근대의 최종단계라는 정의를 인용하면서 그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에 동아시아가 적당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⁹ 첫째, 전지구적 근대의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한 일정정도의 자본 축적이 된 지역이라야 한다. 둘째, 종전의 자본축적의 방식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유동적 상태라야 새로운 창안의 개연성이 확보될 것이다. 셋째, 종전의 방법을 답습함으로써 초래할 재난과 불행의 개연성이 높다. 넷째, 대안적 발전방안을 지원할 대안적인 문화 및 문명유산이 풍부해야 잠재력이 그만큼 커질 것인데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동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백낙청, 2006: 256-257).

중국지식계에서의 동아시아담론도 한국과 비슷하게 서구적 발전주의에 대한 대안 찾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담론은 자체 내에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생성 되었다기보다는 한국 등 다른 동아시아국가들

8. 예를 들어, 미중일 등의 중심국 간의 분쟁 혹은 중심국과 주변국 간의 대립일 수도 있다.

9. 딜릭(Arif Dirlik, 2003: 275-292)은 세계화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근대의 최근 단계를 “전지구적 근대”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과의 교류에서 계시를 받아 더욱 전개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지식계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양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역사적으로 “중국 대 서구”의 구조로 특징지을 수 있는 중국의 이원론적 세계관의 영향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아시아/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일본처럼 중차대한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세계관의 맥락에서는 중국은 아시아의 대표이거나 아시아 그 자체로서 서구만을 “적”으로서 혹은 배워야하는 “모범”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동아시아담론은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에서처럼 자생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고 근래에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의 동아시아담론은 지속되어온 개혁개방정책과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지식인들의 대안 찾기의 노력에서 한국의 담론의 주장들과 공감되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맹아 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이욱연(1999: 223)은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본주의/사회주의의 양분법을 거부하고 근대성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근대성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중국의 사회주의에서가 아닌 근원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근거를 찾으려는 문명론적 전망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한국지식계의 문제의식은 그대로 중국지식계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면서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동아시아담론”에서의 대안모색의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의 동아시아에 대한 언급과 논지들은 한국과 다른 동아시아국가의 지식인들과의 교류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 많다. 2004년 설립된 동아시아의 학자들이 결성한 “인터아시아문화연구협회”(Inter-Asia Cultural Studies Society: IACSS)는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그룹에게 비슷한 성향의 동아시아 학자들과 교류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¹⁰ 이 협회는 동아시아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www.inter-asia.net/>(검색일, 2007년 5월 26일).

각국의 지식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시아의 통합을 모색하는 지식을 창출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의 학자들에게 상호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지식인 그룹과 다른 조직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연대와 교류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서 2년마다 학술대회를 열고 있고 이 방면의 저널과 책의 출판도 하고 있다. 이러한 협회의 운동에는 동아시아각국의 주요 저널들이 참가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의 주요 저널인 『讀書』의 편집자인 왕후이는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과 교류하면서 동아시아에 관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의 주요한 저널인 『창작과 비평』 40주년을 축하하는 그의 메시지에서는 중국지식인들의 동아시아지역주의에 대한 성찰적인 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저널은) 중국의 서구편향적이고, 미국편향적인 경향을 치유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의 핵위기에 대해서는 한국지식계의 논평을 구하고, 대만의 식민역사와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대만학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의 역사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중국(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일본,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자유스럽게 의견을 토로할 수 있는 국제세미나를 그동안 여러 번 개최하였다(왕후이, 2006: 43-44).

이러한 출발점에서 조망한 중국의 담론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원래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동아시아담론보다도 개혁이래로 발생한 중국의 새로운 문제 — 지역격차, 사회적 불평등, 부정부패 — 들에 대한 비판으로서 논지를 전개하였다.¹¹ 서구와 미국주도의 전지구적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발전모델을 추수하는 것을 반대하며 국가발전에는 중국적인 것과 사회주의적인 것을 옹호하고 그로부터 좋은 것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한다.¹² 따라서 그들의 비판자들에게는 중화성(Chineseness)의 옹호자로 혹은

1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중국의 자료는 汪暉(1998). 한국에서 중국의 신좌파에 대한 연구는 이욱연(1997: 348-361); 이욱연(1999: 199-223); 백승욱(2002: 278-302).

12. 중국신좌파의 서구식현대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汪暉(1998). 이 논문의 번역은 이희옥 역(2000a: 229-256; 2000b: 262-283). 그 밖의 자료는 崔之元(1994; 1997);

민족주의로 비추어지기도 한다.¹³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한국의 동아시아담론에서의 탈서구, 탈근대적 발전의 논지와 가까워지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본고의 주장이다. 즉 한국과 중국에서의 동아시아담론은 미국과 서구 주도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발전모델이 역사의 목표라는 담론, 민족국가가 궁극적인 주요단위인 서구의 근대주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일종의 탈근대주의적인 성격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왕후이(2003b: 243)의 대답에서 상기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데 그는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문제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격차와 독점 및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아시아의 협력은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패권과 독점, 일국지배에 반대하는 폭 넓은 사회운동의 일부분이어야 하고 그 전제는 “아시아사회의 비판적 국제주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동아시아 지역과 국가는 세계자본주의의 두 번째 중심지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왕후이(2003b: 245-246)는 하지만 동아시아는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가 남아 있는데 특히 근대사에 대한 인식차이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한반도와 타이완해협 사이의 위기는 식민주의와 냉전, 현대세계의 패권구도와 내적 연관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동아시아민족국가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호의존과 보완성을 지니고 있고 인적교류도 활발하다고 하면서, 따라서 냉전의 그림자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패권적 지배에 어떻게 저항하며 역사의 짐을 벗어버리고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지식인들의 공동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동아시아를 대안으로 찾게 된 것은 탈서구식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중국이 곧 아시아라는 전통적인 아시아주의에 대한 한계를 자각하기 시작한 것을 나타낸다고 본다. 중국 중심적인 아시아주의로는 서구식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戴錦華(1999); 何清連(1998); 張法, 張武(1994).

13. 비판의 논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李澤厚(1998); 陽春時(1999); 任劍濤(1999); 陶東風(1999); 汪丁丁(1999); 李歐梵, 王曉明 外(1998). 이들의 주장을 정리한 한국자료로는 이육연(1999: 199-222).

도 없다는 것을 점차로 자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주창하는 동아시아담론에서의 주장은 그들이 추구하는 탈근대, 탈서구적 전략으로서 전지구화자본주의발전에 대한 대안모색이라는 주제와 공통적인 게 많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왕후이(2003a: 224-225)는 동아시아담론을 일종의 아시아의 사회운동으로 여기면서 총체적으로 많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가 보기에 “아시아 각지의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의 전지구화추세와 국가정책에 대한 저항 속에서 발전된 것이며 따라서 아시아각지의 사회운동을 연결하는 매개체는 마땅히 신자유주의/신제국의 세계질서와 국내정책에 대한 저항이자 비판”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아시아 상상은 20세기의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목표와 과제를 뛰어넘어야 하며 동시에 반드시 새로운 조건에서 이들 운동이 해결할 수 없었던 역사적 과제를 탐색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운동은 새로운 냉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낡은 냉전과 그 파생형식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식민관계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하거나 새로 생겨나는 식민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당대 아시아구상의 중요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담론은 역사적으로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적 현대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였는데 20세기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이 이미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잔영은 여전히 새로운 아시아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하고 있다. 그는 20세기의 동아시아담론이 어떻게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에 유효하게 저항하고 그것들을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논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면, 근대 아시아의 역사적 유산으로서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동력, 걱정적이고 미완성인 임무는 모두 새로운 탈냉전 21세기의 아시아 상상으로 전화되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그의 동아시아담론에 대한 기대가 잘 대변해 주듯이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신자유주의적 발전에 대하여 중국의 사회주의전통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찾아내어 대안을 삼으려고 한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양국의 동아시아담론에서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탈근대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즉 탈근대주의담론에서는

서구적 근대성과 국민국가를 역사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서구 근대성의 제도 하에서 소외되었던 아시아와 제3세계의 지역적 전통을 되살려 놓고 있다. 또한 “강한 국민국가”(strong nation-state)라는 근대성의 최고목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약한 비서구 국가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수평적 인식을 배양하는 탈근대주의의 사고체계가 한중양국에서 아직은 개개인의 산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동아시아의 지식계나 정치지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인식으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2. 탈중심주의와 탈국민국가주의

동아시아담론은 근대이후의 세계가 서구와 미국의 조망에서 움직여 왔다고 하면서 탈냉전과 함께 이제는 동아시아를 동아시아의 조망으로 기획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서의 담론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주변에서 바라 본 동아시아”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변에서부터 중심을 조망하자는 주제는 한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는 세계체제의 주변부이다. 게다가 한국은 그 동아시아에서도 주변국이다. 그렇다면 세계체제에서는 주변부이면서도 지역에서는 중심부인 중국보다도 이러한 주변부로서의 문제인식은 한국이 더욱 심각하게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영서는 한국을 “소중심 혹은 반주변부”로 정의하고 한국이 중심-주변관계를 변화시키는 적극적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¹⁴ 즉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쟁관계, 한중일 3국과 동남아와의 경

14.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월러스틴은 “중심-반주변부-주변”이라는 세계체제의 삼중구조를 창안하였다. Wallerstein (1979: 95-118). 이 맥락에서 백영서는 한국을 “반주변부”와 비슷한 용어인 “소중심”으로 정의한다. 백영서(2004: 19-20). 그러나 필자는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중-일과 대비하여 “주변국”으로 정의하며 동남아국가와 대비한다면 “반주변부” 혹은 “소중심”으로 볼 수 있다고 여긴다.

제적 불균형관계에 대한 중재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아시아 협력체제구축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동아시아담론은 이렇게 세계체제에서의 주변부였던 동아시아의 역동적 가능성과 다시 그 안에서의 주변국인 한반도의 중재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백영서, 2004: 33-34). 최원식(2004: 321)은 “동아시아가 주변이로되 세계체제를 흔들 충분한 가능성을 품은 역동적 지역, 다시 말하면 대체로 중심과 주변 사이에 등지를 틀고 있다”고 하면서 동아시아담론이 지역의 주변부인 “한반도 분단체제의 변혁이라는 실험적 작업”을 계기로 동아시아평화체제로 가는 출구를 발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탈중심주의적 시각은 “중심에서 억압당했던 주변의 시각을 의식화”한 것이다(최원식, 2004: 321). 그러나 주변의 시각에서 출발하는 한국의 동아시아담론은 기존의 중심주의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중심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중심주의 자체를 철저히 해체함으로써 중심들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최원식, 2004: 313-333; 최원식, 2001: 381). 즉, “주변에서 보는 중심” 담론은 세계체제의 중심과 지역의 중심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심과 주변 사이의 “위계적 인식”으로부터 “수평적 인식”을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 같은 주변부의 시각은 논리적으로 지역에서의 중심주의(대국주의)와 국민국가주의를 극복하자는 논지와 일맥상통된다. 즉, 담론은 동아시아가 과거에 “강대국의 꿈”에 사로잡혀 세속적인 목표인 “부국강병”에 몰입하였다고 비판한다(白永瑞, 1999: 3). 이러한 국민국가주의를 극복하는 일이 실질적 내용을 갖추려면 우선 “대국주의와 소국주의의 긴장”이란 발상을 견지해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대국주의를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최원식, 1998: 20-27). 동아시아의 20세기 역사에서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내정개혁을 추진하는 “소국주의”의 유산을 다시 되살리자고 하면서 그 행위의 주체는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백영서, 2005: 33). 따라서 담론은 이제는 국민국가주의를 초월하여 주변(약소국)에서 제기하고 중심(강대국)으로 진행되는 연대 혹은 공동체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변에서 시작하는 동아시아연대는 과거의 중화제국이

나 일본의 대동아공영권과 같이 강력한 중심국에 의해 주도되는 연대와는 다른 개념이다(백영서, 2005: 10-34; 백영서, 2004: 13-36).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는 탈중심주의와 함께 탈국민국가주의를 발전시켜야 지역의 평화와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동아시아담론의 특징이 잘 들어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담론의 특징은 중국보다 한국의 동아시아담론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의 중심국이었던 중국에 비해 지역의 주변국이었던 한국의 담론에서는 배타적 주권을 향유하는 강한 국민국가보다는 세계화시대의 네트워크로서의 국민국가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낙청(2006: 80-84)은 민족주의적 통일과 국가형태에 반대하면서 “단일형 국민국가”(unitary nation-state)형태에만 사로잡히지 않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나의 민족 또는 종족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에 모여 사는 주장은 지구상에 비극만 초래한다고 한다. 한반도에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 동포와 자손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국가로 합쳐서 살고 싶다는 염원과 일맥상통하는 방법으로서 한반도에서는 단일형 국민국가보다 다민족 사회를 향해 개방된 “복합국가”(compound state)가 민중의 이익에 더욱 충실한 국가형태일 수 있음을 인정할 때 국적과 거주지역을 달리하는 느슨한 “범세계적 민족공동체”(ethnic community) 내지 “네트워크”로서의 한인공동체를 유지 건설하는 작업이 현 세계체제 속에서 어떻게 가능하고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히 단일국가(unitary state)에 반대되는 매우 추상적 개념으로서 온갖 형태의 연방국가와 국가연합들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떤 게 한반도에 맞을 지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지역국가 간의 네트워크로서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가장 적극적이는데 이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중심-주변이라는 구도를 허물고 수평적인 지역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한다는 논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론에서는 중심국가-중국, 일본, 미국 등의 주변국에 대한 위계적 인식(hierarchical

perception)에 대한 진지한 비평적 토론도 진행되고 있다.¹⁵

한국지식인들의 탈중심-탈국민국가주의적 지향과는 달리 중국의 지식인들은 아직까지도 국민국가의 배타적 주권을 강조하는 측면이 여전히 남아있고 지역국가 간의 수평적인 조망의 증진에 대해서는 아직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직도 강한 국민국가주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¹⁶ 단지 동아시아적 대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강한 국민국가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지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수평주의적 사고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이다.¹⁷

상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사례가 한국의 담론의 주창자인 백영서의 논문에 대한 중국의 쑤거(孫歌)(2000: 57)의 응답형식의 논문이다. 양자의 논문을 비교 분석해 보면 동아시아담론에서의 지적인 상상을 중국지식인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국민국가의 역할에서 양국의 지식인들의 견해는 미묘한 차이점이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쑤거의 언급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동아시아담론은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조망을 극복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협력을 진행하는 데 국가 간 권력의 불균형을 덮어버리는 위험을 안고 있다. 불균형은 경제력이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는 따라서 민족주의와 아시아주의, 불균형한 경제와 수평적 인식을 강조하는 지적인 제안들 사이에서 곤경에 처해있다. 왜냐하면 실제상황에서는 (지적인 상상과는 달리) 그렇게 분명한 선택은 없기 때문이다.¹⁸

이러한 언급은 담론이 국민국가에 대해서 새로운 조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에 국력의 불균형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함

15. 중국과 한국 간의 수평적 인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성빈(2006: 105-134).

16. 백영서의 정의에 의하면 “강대국의 꿈”(強國夢)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白永瑞(1999: 3).

17. 필자는 쑤거의 논문에서 이러한 면이 나타나 있다고 본다. 孫歌(2000: 52-59).

18. 괄호 안은 필자의 첨가.

으로써 수평주의적 조망이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견해는 제3세계에서 탈식민주의 담론이 보수주의적 정서를 정당화 시켜 주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딜릭의 비판을 각인 시킨다.¹⁹ 그 증거로서 그녀는 중국이 중심에 있는 동아시아신질서구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그녀는 대중국주의는 일본과는 달리 중국의 정서에 깊이 각인된 “지리적 광대함의 실제적 인식”(孫歌, 2000: 53)에 기인한다고 하면서 중국의 대국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중국에서의 동아시아담론의 주요한 지지자답게 강한 국민국가주의에 대한 백영서의 비판적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동아시아담론이 중국의 잔존하는 대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다(孫歌, 2000: 52-59). 물론 이러한 담론의 지적인 제안들이 현실적으로 양국의 사회와 정치경제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는 아직은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

왕후이(2003b: 249)의 국민국가에 대한 견해도 한국의 담론과는 다른 접근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현대자본주의의 주요특징은 언어와 풍속 등 문화적 다양성을 외해시키는 것인데 현대사회의 정치형식으로서 국민국가는 약소사회가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국민국가주도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탈냉전시대에 동아시아의 지역적 조화를 추구하는 탈중심적이고 주변에서 주도하는 지역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왕후이는 세계화자본주의체제에서 국민국가는 다양성을 외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헌법은 민족지역자치의 권리를 확립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실시된다면 다원적 문화, 사회의 내부협력체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하면서 중국의 국민국가주의를 여전히 지역주의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국민국가내부관계의 변화는 국제관계의 조정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 것은 중국의 국민국가주의는 주위국제환경의 영향 즉 미국과 일본(및 러시아)의 존재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필자가 논한 대로 “중국 대 서구”(일본을 포함하여)의 대결구도에 대한 견제인식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국가주의지향이

19. 이에 대해서는 Dirlik(1997: 52-83); 朱耀偉(2001: 86-115).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강한 국민국가주의를 잘 나타내는 사례는 “동북공정”(東北工程) 역사프로젝트이다. 이론적인 동기로 보면 이 프로젝트는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과거)국가들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며 과거에 중국영토 내에 존재했던 국가들(현재는 중국영토 밖에 존재하는)도 그 역사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확립하려는 시도이다(陳克進, 1993: 303-4, 308). 이 것은 중국의 국가역사의 발전내용을 제시하고 미래에 이 주제에 관한 외국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이론적 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이라고 한국학자들은 보고 있다.²⁰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중국의 지식인들은 중국을 일종의 “통합적다민족국가”(unified multi-ethnic nation-state)²¹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한 국민국가주의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로서의 동아시아지역의 국가로서의 중국을 상상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왕후이와 쑨거의 견해를 유추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지식인들은 아직도 동아시아지역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중심국가의 필요성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강한 국민국가주의(혹은 대국주의)와 동아시아 이웃국가들에 대한 수평적 조망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중국지식계의 두 가지 측면의 정서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첫째, 미국과 일본의 역사에 비해서 중국은 아직도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탈냉전 시기에도 미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은 중국으로 하여금 “반응적 민족주의”(Zheng, 1999)와 방어적인 발전전략으로서의 강한 국민국가이념을 가지도록 고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입장과는 반대로 지적으로 수평적인 조망을 지향하려는 측면에서는 지역의 평화스러운 장래를 위해서, 주변국에 대해서 중국이 우호적인 중심국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문화와 경제방면의 교류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20. 한국학계의 동북공정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는 이개석 외(2005). 한국에서 동북공정에 대해 중국의 정치적인 동기를 주장하는 자료로는 고성빈(2006). 한국민족주의분출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방어적 연구프로젝트라는 측면과 학술적인 동기를 강조하는 자료로는 Lee(2005: 239-264),

21. 중국의 “통합적다민족국가”개념에 대해서는 趙華富(1982: 28-51).

있다. 더구나 “연성의 힘”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면 지역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현실도 이러한 수평적인 조망에 동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동아시아신질서 구상

동아시아담론에서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탈냉전시대의 동아시아지역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의식에서이다. 즉 탈냉전은 신자유주의와 전지구적 자본주의화라는 “전지구적 근대”와 또는 “근대의 최신 국면”을 초래하였다. 유럽연합(EU)의 경우는 독자적 자본주의 발전의 정도가 높고 문화적 종속이 덜하며 결정적으로 지역의 역사, 정치문제에 합의와 교감이 형성이 된 관계로 불확실성이 적은 상태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유럽과 같은 문화적 동질성이 부재하며, 경제의 발전이 한중일에 편중된 점, 아직도 역사문제에 지역국가 간의 합의가 없는 점,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의 침투요인 때문에 지역차원에서의 새롭고 독자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열망도 크지만 그만큼 불확실성도 크다. 즉 동아시아에서는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과 이를 방해하는 요인이 혼재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냉전시대의 마소 묵시적 공조패권체제가 도전받으면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무기로 세계를 지속적인 미국중심의 패권체제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냉전시대와 같은 패권적 구조가 파생하는 알력들이, 문명과 문화적으로는 다양화와 자생적 지식의 모색이, 경제적으로는 무제한 개방과 본토주의적 발전 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지구적 자본주의화와 본토주의적 발전의 대안 사이의 공간에서 동아시아담론은 지적인 상상이자 프로젝트로서 동아시아신질서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지적상상이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근래에 출범한 동아시아공동체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가 적극적으로 제의하고 한국 및 지역의 중심국인 중국과 일본이 동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아직은 참여

국들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주변에서 중심을 설득시킨 것이라는 면에서 담론의 시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담론에서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지역국가 간의 경제와 안보, 문화와 인적교류를 분리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사고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 지역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려면 정치, 안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협조체제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다. 정치경제적으로 보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는 먼저 동북아 3국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월러스틴은 동북아 3국이 반목을 극복하고 모종의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앞으로 수 십 년간에 걸쳐 현존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새로운 다른 체제로 이행할 때 동아시아공동체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이 주로 동아시아인들에게 달렸다는 전망을 제시한다(Wallerstein, 2005). 따라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구상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와다 하루끼(2004: 130)는 한반도에서 “6. 15 공동선언”은 이미 동북아 지역 협력의 시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시각에서 보는 동아시아신질서구상에 대해서 이수훈은 동북아를 우선적으로 논하고 있다. 그는 동북아의 3국이 동아시아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한중일중심의 동북아를 더욱 현실적으로 유효한 단위로 보고 있다. 그는 한국이 동북아 시대를 주창하는 근거는 지리적 매개자(중국과 일본 사이)로서의 잠재력, 과거 식민주의의 희생자, 중일간의 중재지역할론, 패권적 야망과 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더욱 적극적 요인은 근대적 정치사회적 발전의 기반이다. 과거의 반독재투쟁을 극복하고 정치적 민주화에 성공하면서 중국과 일본보다도 더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형성하였고 경제발전과 사회의 비판정신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다는 것이다(이수훈, 2004: 214-245). 한국은 동북아를 표방하되 동남아지역과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이수훈, 2004: 226-227). 이러한 그의 조망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근래에 동아시아를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일반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는 아세안+3체제가 신속히 제도화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매개자로 될 때 주변세력인 동남아는 주요한 지지자가 될 수 있으며 동남아를

자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편입하려고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 사이를 견제하고 동북아와 동남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지역중심국들과 동남아주변국들 사이의 간극을 한국이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주변에서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기도 하다.

왕후이(2003a: 221-222)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한 견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담론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육지의 6할과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륙이며 단일한 문화로서 아시아를 설명하는 것은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다고 한다. 설령 아시아개념을 동아시아개념으로 축소한다고 해도 동아시아내부의 문화적 다양성 문제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본다. 그는 아시아는 유럽과의 대비 관계에서 수립된 것으로서 그 내부에는 각종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 및 그 밖의 사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서 하나의 총체적 범주로서의 아시아 - 그는 여기서도 동아시아가 아닌 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역사적 전통에서나 현실관계에서나 아시아는 훨씬 다원적이며 EU식의 슈퍼국가(공동체) 수립의 가능성이나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아시아의 다원성이 이제까지 아시아국가의 교류와 연계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여기에서 미래의 통합발전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두 측면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데 한편으로 문화적 다원성은 이제껏 아시아내부의 교류와 연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또 한편으로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조건, 지역상의 직접적 연계, 경제발전의 상호보완성 및 정치문화의 유사성은 지역연계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는데 다양성은 내부의 다중구조 관계가 구성한 것으로, 결코 특정 국가들이 이러한 역사적 조건을 전제로 더욱 긴밀한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의 틀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입각하여 그는 동아시아공동체구상에 대해서 다음 같이 두 가지 가능한 방향을 설정한다. 첫째는 아시아 내부의 문화공존적 제도경험을 취하여 민족국가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아시아지역내부에서 상이한 문화 종교 및 민족의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적 연

계를 매개체로 하여 다층적 개방적 사회조직 즉 아세안+ 한중일 공동회의 같은 것을 형성하여 경제발전에 협력하고 이익충돌을 없애며 민족국가체제의 위험성을 약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왕후이의 동아시아공동체 상상은 아시아라는 개념의 모호함과 유럽의 경우와는 다른 다원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한다는 전제하에 지적인 상상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한 상상만큼이나 공동체구상을 가로막는 요인도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동아시아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자각으로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들은 미국/서구 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 찾기로 공동체 구상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이중적 과제를 부담시키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냉전시대의 대립을 넘어서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증대시키는 한편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향과 일본의 우경화움직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등장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적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미국주도의 한반도 구도탈피를 위한 한국의 점진적인 탈미자주적 남북교류와 미국과 강대국들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분단체제의 탈피를 위한 노력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지역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점차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반도에 대한 동북공정의 제기와 마-일본 동맹에 대한 견제를 국가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은 모두 공통적으로 냉전시대에는 덮여두었던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고가 주장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은 중국의 동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위계적 인식”을 들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동아시아담론에서는 동아시아국가와의 수평적 사고의 결핍을 지적하는 데까지는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지역정체성과 더불어 강한 국민국가주의도 같이 증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면서도 상호 분쟁의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이러한 공통적 이해(common understanding)와 상호이견(mutual discords)을 어떻게 조정하고 극복하느냐를 모색하기 위해

서 그들의 동아시아담론을 전개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복합적 문제들의 대안으로서 “동아시아신질서 구상”이 등장한 것이지만 그 문제들 자체가 공동체구축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공동체 구상도 서유럽의 탈미국중심의 발전에 대한 대안인 EU에서 방법론을 차용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즉 탈서구적 근대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면서 서구의 방법론을 차용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의 실현과정에서 어떻게 EU와는 다른 탈서구적인 동아시아적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IV. 양국의 동아시아담론에 대한 평가와 전망

양국의 담론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 지향으로서 탈근대, 탈서구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동아시아지역의 연대와 통합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지역연대를 이루어야 하는 국민국가의 성격문제이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탈국민국가주의적인 지향으로서 국민국가 간의 네트워크로서의 지역공동체를 주장한다. 그 안에서 국민국가는 상호 수평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지식인들은 아직은 수평주의적인 조망에서의 지역공동체구상은 지적인 상상일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평주의적인 지역국가 간의 관계보다도 서구에 대항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와 중심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국가주의와 대국주의적 정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의 담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연대는 지역에서의 패권국 등장의 견제, 시장통합의 실천을 포함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국가 간 발전의 불균형, 환경오염문제 등에 대한 난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지역의 진보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송주명(2000: 72-74)은 탈냉전기 미국의 패권질서에 대한 확장된 민족주의적 대안으로서의 “아시아주의”를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비판한다. 첫째, 세계경제는 이미 상호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분할이 불가능하며 문화양식도 지역규모를 넘어서 전개되고 있으므로 지역정체성에 의지하여 경쟁을 하려는 것은 세계체제에 적대적 분열을 초래한다. 둘째, 아시아지역주의는 이상주의적 지역결합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발전전망이 불투명하고 지역국가의 경제발전정도에 따라 내부의 수직적 계층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셋째, 아시아주의적 대안은 지역적 대결의식에 기초한 민족주의적 대응의 확장형태로서 지역의 현상을 용인하는 보수성을 갖는다는 측면이 있다. 넷째, 태생적으로 이상주의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강대국중심체제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힘들며 이상과는 반대로 국민국가주의적인 제국주의적 책동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대안으로서 “민중적 관점에 입각한 근본적인 국제질서의 재편의 상을 꾸준히 모색함과 동시에 민중의 이익에 걸맞게 현상에 개입하는 것이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양심적이고 진보적 세력들에 의한 대중운동”과 “국제적 사안에 대하여 이슈영역에 따르는 다양한 국제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임지현은 좌파지식인들의 민족주의지향을 비판하면서 간접적으로 동아시아지역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월러스틴을 인용하면서 좌파에 의해 추동되는 국민적/지역적 집단들의 정체성에 기초하여 저항의 거점들을 만들고자 했던 노력은 결과적으로 “제국”의 발전을 지지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²² 좌파지식인들에 의한 민족주의/국가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결국은 근대주의의 극복을 위한 근대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결국 그의 탈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국민적/지역적 집단들의 정체성에 기초하여 저

22. 월러스틴은 구좌파의 변혁적 사고가 개별국가단위에 갇혀있었고 민족운동 또한 국가성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체제의 제약들 안에 포섭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좌파와 결합된 민족주의/국민국가주의는 결국 중심-반주변부-주변부의 세계체제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체제에 어떠한 변혁을 일으키는 데 공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월러스틴(1994); 네그리 외(2001: 80-82).

항의 거점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반동적이며(임지현, 2002: 185) 따라서 대안으로 그는 “개별주체들이 고유성을 견지하면서 소통적 사회성을 구성해 나가는 다중(多衆), 자본주의의 식민화에 대항한 소통적 사회성, 탈근대적 공화주의, 자율주의 운동 등”(임지현, 2002: 201)을 생각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간략히 말하면, 송주명은 “동아시아지역주의”가 민족주의적 저항의 확장된 의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지현은 동아시아지역주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좌파들의 식민지해방운동과 세계체제개혁운동, 이후의 국내적인 좌파적 개혁운동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경청할 만하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담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필자가 보기에는 바로 이들의 비판의 근거가 되는 문제의식에서 동아시아 담론은 출발하였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담론의 논지에 이미 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극복이 시도되고 답이 있다고 믿는다. 송주명의 비판에서 지역주의가 지역간 경쟁을 초래한다고 하지만 담론의 비판적 지역주의정신에서 이러한 국가 간 지역 간 경쟁의 의식과 구조를 초월하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임지현은 한국에서의 비판적 지식인이나 동아시아담론주의자들의 세계체제론의 원조인 월러스틴의 좌파비판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좌파들이 민족주의/국가주의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백영서와 쉰거의 반성 즉 동아시아가 과거 “강대국의 꿈”에 사로잡혀왔다는 데서 담론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즉 월러스틴과 임지현의 비판의 출발점이 사실상 동아시아담론의 근본적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와 강한 국민국가주의에 대한 탈국민국가적 시각, 저항의 거점이 아닌 대안의 추구로서의 동아시아, 중심의 시각이 아닌 주변의 시각에서의 동아시아의 모색이 곧 동아시아담론의 주요 논지이기 때문이다.

담론은 지역연대가 강대국과 서구에 대항하기 위한 약소국들의 연맹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지역은 다시 탈냉전시대에 강대국 혹은 국가들끼리 편가르기와 민족주의가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단위라는 개념에 너무 집착하면 아시아와 비아시아라는 이원적 세계관에 사로잡히게 되고 아시아라는 단위에 특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자아비판하고 있다.²³ 여기에 딜릭의 “비판적 지역주의”의 특징이 베어 있다. 즉 동아시아지역주의는 미국과 서구를 극복하려는 저항적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그들의 비판과 극복대상인 서구와 같은 강한 국민국가주의를 매개로 한 집체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발전을 방해했던 과거의 봉건적 제도와 이념을 되살리려는 노력도 아니라는 것이다.²⁴ 동아시아가 이러한 비판적 지역주의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담론과 운동들에도 동아시아인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본다.

특히 중국의 담론에 대해 분석하다보면 “비판적 지역주의”관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근대성으로부터 제공받은 비판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공동체주의에 대한 낭만적 향수나 - 동아시아에서 이른바 유교의 부활 같은 - 새로운 종류의 헤게모니 지향적인 민족주의적 갈망 혹은 현재를 과거 속에 가두는 역사주의는 동아시아지역주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예에 해당하는 것이 최근에 동북공정(東北工程)에서 보듯이 중국학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관을 만들어 내려한 시도이다. 딜릭(1994: 140-143; Dirlik, 1994)은 이것은 의도는 좋지만 방향은 잘못 잡은 것으로 해석한다. 의도가 좋다는 것은, 중국 역사를 서구의 목적론과 개념의 헤게모니에 예속된 상태에서 탈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며 잘못되었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서구의 개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과거와 단절되었기에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고가 거기에 잠재적으로 수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서구의 자본주의적 억압에 맞서는 오늘날의 해방투쟁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전근대적 억압형태들을 묵과하는 식으로 회피해서는

23.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남주(2005: 395-423).

24. 서구중심의 근대화와 과거의 패권적 지배에 대한 비서구의 저항에 근거를 둔 지역주의담론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비판적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Dirlik(1994: 105-113); 한경구(2000: 367-371).

안 된다는 것이 그의 비판이다. 서구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전근대적인 과거에 의존하는 것은 탈미국/서구 패권적인 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새로운 종류의 중화주의(혹은 강한 국민국가주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결국, 왕후이와 쑨거의 담론에서는 딜릭의 비판이 적용될 수 있는 지적경향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견해이다. 즉, 그들이 한국의 동아시아담론의 기본적 논지 - 지역주의와 공동체 구상 - 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적으로는 지역 국가간의 수평적 조망과 탈국민국가주의가 필요하다고 이해는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중국 대 서구”의 세계관에서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중국주의와 위계적 동아시아인식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의 동아시아담론과 비교했을 때 가장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담론의 논지들이 정치사회적 실천영역으로 확장되면 - 동아시아공동체구축의 과정에서 - 연구와 대화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세계화현상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동아시아의 국가와 지역인들이 국민국가주의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한계가 오히려 “지적인 실천으로서의 동아시아”, “프로젝트로서의 동아시아”(Baik, 2002: 283-284; Dirlik, 1999: 186-188)라는 지적인 구상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식인들은 직접적으로 국가를 설득하는 것보다 지역국가의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가를 향해 요구하는 식으로 동아시아담론의 정신들을 실천하는데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거대한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이 이제 막 시작된 상태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모든 평가를 종합해 보면, 동아시아담론에 대해 가장 정곡을 찌른 평가는 담론이 아직은 지적인 상상에 머물고 있으며 구체적인 영역 특히 정치사회적 부문으로의 실천과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은실, 2000: 272). 동아시아담론은 서구적 근대화와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담론은 처음부터 정치경제영역에서의 실천의 가능성 보다는 현상의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담론의 기본적인 발상들이 추진

력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동아시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변화가능성이 나타나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즉 지식인의 담론에 한정되지 않고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민국가지상주의에 몰입했던 “20세기형 문명”을 넘어서려는 문명론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백영서, 2000a: 13-47).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접근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구체적인 실천의 장에서 가시화된 결과를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여전히 담론의 숙제로 남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담론은 단순히 지적인 상상에서의 규범적이고 사변적인 연구를 넘어서 지역에서 현재하는 구체적 정치경제, 사회적 문제들과 연관시키는 미시적인 주제로의 접근을 시도하여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V. 결론

동아시아담론은 서구중심의 근대주의적 발전주의에 대한 토착적인 대안 즉 동아시아의 자주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담론에서의 동아시아의 개념은 냉전시대의 의미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이다. 동아시아공동체구상에서 내포하는 동아시아의 의미는 지역의 중심국에 의해 주도되는 개념이 아닌 주변국이 상상하고 제안하는 탈중심의 동아시아개념이다.

그러나 지적인 영역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사회적 실천의 영역으로 발전을 추구하려는 일종의 상상의 프로젝트로서 아직은 동아시아각국의 구체적인 정책에서 지역적 차원의 실천수준으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자연적으로 비판론자들은 담론이 단지 현상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담론이 비판하는 신자유주의는 동아시아국가들에서도 정부적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주류의 발전방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공식적 레벨에서는 동아시아국가 발전의 모토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중 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이러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발전의 추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자국과 지역의 사정에 맞는 대안의 모색으로서 동아시아담론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담론이 단순히 정치경제적인 상상이 아니고 지적, 문화적, 인간적 교류까지를 망라한 복합적 상상이라면 지역국가 간의 상호 수평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국가의 경제발전과 제도의 투명성, 시민사회와 지식인간의 대화와 활동의 네트워크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담론은 탈국경적인 시민연대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지역질서를 이룩하는 주체로서 민간단체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 출현한 동아시아질서가 모두 중심 국가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며 오늘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라는 구상에서조차 여전히 국민국가들의 연합체라는 인식이 작용한다는 우려를 고려한다면 탈국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연대가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²⁵ 특히 동아시아 개별 국가의 지식인 그룹과 민간운동의 주체가 직면한 모순이 미국 및 지역의 중심 주변국가들 사이에 연관된 문제이고 그 영향이 지역국가의 민중에게 미치는 만큼 그 해결도 단순히 일국내부 민간단체의 사회운동 내지는 대정부 투쟁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연대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운동이 동아시아의 균형과 지역 국가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수평적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 고성빈. 2006. 「중국의 한국인식: 수직적 인식을 넘어서 수평적 인식으로의 발전 전망」. 『국가전략』 제22권 4호. 겨울. pp. 105-134.
- 김명섭. 2005.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탄생」.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pp. 264-308.
- 김은실. 2000. 「‘동아시아담론’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 정문길 외. 『발견으로

25. 동아시아연대운동에 있어서 지역국가의 시민단체 간의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백지운(2005: 348-394).

- 서의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pp. 255-275.
- 네그리 A. 외. 2001. 『제국』. 이학사.
- 민두기. 2002. 「동아시아의 실체와 그 전망: 역사적 접근」. 『시간과의 경쟁: 동아시아근현대사논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pp. 39-62.
- 백낙청. 1994.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 비평사.
- 백낙청. 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 비평사.
- 백낙청. 2004. 「21세기 한국과 한반도의 발전전략을 위해」. 백낙청 외. 『21세기 한반도 구상』. 창비. pp. 13-32.
- 백낙청. 2006.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작과 비평사.
- 백승욱. 2002. 「신자유주의와 중국지식인의 길 찾기」. 『역사비평』 여름호. pp. 278-302.
- 백영서. 2000(a). 「20세기형 동아시아문명과 국민국가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 비평사. pp. 13-47.
- 백영서. 2000(b).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 한국인의 시각」.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pp. 48-66.
- 백영서. 2004.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정문길 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pp. 13-36.
- 백영서. 2005. 「제국을 넘어 동아시아 공동체로」.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pp. 10-34.
- 백지운. 2005. 「동아시아지역질서 구상과 '민간연대'의 역할」. 백영서.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pp. 348-394.
- 송주명. 2000. 「탈냉전기 동아시아 태평양의 안보경제체제와 한반도」. 『역사비평』 겨울호. pp. 54-74.
- 이개석 외. 2005.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 연구재단.
- 이남주. 2005. 「동아시아 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민국가의 협력인가, 국민국가의 극복인가」.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pp. 395-423.
- 이수훈. 2004. 「동북아시아대 신구상」. 백낙청 외. 『21세기 한반도 구상』. pp. 214-245.
- 이옥연. 1997. 「중국지식인의 인식변화: 80년대와 90년대」. 『역사비평』 봄호. pp. 348-361.
- 이옥연. 1999. 「세기말 중국지식계의 새로운 동향-신좌파를 중심으로」. 『실천문학』 겨울호. pp. 199-222.
- 이희욱. 2000(a). 「세계화속의 중국, 자기변혁의 추구」. 『당대비평』 No. 10. pp. 229-256.
- 이희욱. 2000(b). 「세계화속의 중국, 자기변혁의 추구」. 『당대비평』 No. 11. pp. 262-283.
- 이마누엘 월러스틴 외. 1994. 『반체제운동』. 창작과 비평사.
- 아리프 딜릭. 1995. 「아시아 태평양권이라는 개념」. 정문길 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 지성사. pp. 41-72.
- 아리프 딜릭. 1994.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눈뜨기』. 창작과 비평사.
- 와다 하루끼. 2004.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 임지현. 2002. 「다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창작과 비평』 가을호. pp. 183-201.

- 왕후이. 2003(a). 「아시아상상의 계보: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pp. 171-225.
- 왕후이. 이욱연 외 옮김. 2003(b).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비.
- 왕후이. 2006. 「우리의 공동사명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 봄호. pp. 43-44.
- 왕후이와 이욱연과의 대담. 2000. 「신자유주의와 중국지식인의 대응: 동아시아연 대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 겨울호. pp. 335-353.
- 장인성. 2005.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정체성: '동아시아의 새로운 상상'과 '국제사회로서의 동아시아」. 『세계정치』 제26집 2호. pp. 3-26.
- 조혜정. 2004. 『탈식민지시대의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1권. 또 하나의 문화.
- 한경구. 2000. 「동아시아의 경영문화-가능성과 한계의 모색」. 정문길 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pp. 355-382.
- 최원식. 2004. 「주변, 국가주의 극복의 실험적 거점」. 정문길 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pp. 313-333.
- 최원식. 2001. 「한국발 또는 동아시아발 대안?」. 『문학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pp. 377-390.
- 최원식. 1998. 「세계체제의 바깥은 없다」. 『창작과 비평』 여름호. pp. 14-32.
- 白永瑞. 1999. 「世紀之交再思東亞」. 『讀書』 No. 8. pp. 3-8.
- 孫歌. 2000. 「亞洲論述與我們的兩難之境」. 『讀書』 No. 2. pp. 52-59.
- 孫歌/丸川哲史 대담. 2002. 「東アジア越境する知?」. 『週刊讀書人』. 2002年 8月 30日.
- 李澤厚. 1998. 「歷史眼界與理論的'度」. 『天涯』 第一期.」.
- 李歐梵 外. 1998. 「單元與多元的現代性-汪暉(當代中國大陸的思想狀況與現代性問題)-文討論紀要」. 『天涯』 第四期. pp. 54-57.
- 汪暉. 1998. 「當代中國的思想狀況與現代性問題」. 『文藝爭鳴』 제6기.
- 崔之元. 1994. 「制度創新與第二次思想解放」. 『二十一世紀』 8月號. 總第二十四期. pp. 5-16.
- 崔之元 外. 1994. 「以俄爲鑒看中國」. 『二十一世紀』 8月號. 總第24期. pp. 17-28.
- 崔之元. 1997. 「經濟民主的兩層含意」. 『讀書』 4月號.
- 戴錦華. 1999. 『猶在鏡中-戴錦華放談錄』. 知識出版社.
- 何清連 外. 1998. 『現代化的陷穽』. 今日中國出版社.
- 張法, 張武, 王一川. 1994. 「從現代性到中華性」. 『文藝爭鳴』 第二期.
- 陽春時. 1999. 「現代性批判的錯位與虛妄」. 『文藝評論』 第一期.
- 任劍濤. 1999. 「'解讀'新左派」. 『天涯』 第一期.
- 陶東風. 1999. 「從呼喚現代化到反思現代性」. 『二十一世紀』 6月號. 總第53期. pp. 15-22.
- 汪丁丁. 1999. 「啓蒙死了, 啓蒙萬世! -評汪暉關於'中國問題'的敘說」. 『戰略與管理』 第一期.
- 朱耀偉. 2001. 「誰的中國性:九十年代兩岸三地的後殖民研究」. 『香港社會科學學報』 No. 19.

- 陳克進. 1993. 「略述中國古代民族關係的討論」. 『中國史學研究動態』. 中華書局. pp. 303-308.
- 趙華富. 1982. 「為正確闡明我國歷史上的民族關係而鬭爭」.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篇. 『中國民族關係史論文集』上集. 民族出版社. pp. 28-51.
- Baik, Young-seo. 2002. "Conceptualizing 'Asia' in modern Chinese mind: a Korean perspective." *Inter-Asia Cultural Studies* 3(2). pp. 277-286.
- Chen, Kuan-Hsing. 2002. "Why is 'great reconciliation' im/possible? De-Cold War/decolonization, or modernity and its tears (Part II)." *Inter-Asia Cultural Studies* 3(2). pp. 235-251.
- Dirlik, Arif. 1997. *The Postcolonial Aura: The World Criticism in the Age of Global Capitalism*. Westview Press.
- Dirlik, Arif. 2003. "Global Modernity?-Modernity in an Age of Global Capital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6(3). pp. 275-292.
- Dirlik, Arif. 1999. "Culture Against History." *Development and Society* 28(2). December. pp. 167-190.
- Dirlik, Arif. 1994. *After the Revolution: Waking to Global Capitalism*. Wesleyan University Press.
- Lee, Hee Ok. 2005.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South Korean-Chinese Relations" *Korea Journal*. Summer. pp. 239-264.
- Said, Edward W. 1979. *Orientalism*. Vintage Books.
- Wallerstein, Immanuel. 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lerstein, Immanuel. 2005. "East Asia and the World: The Decades Ahead." Comment No. 157. 3월 15일. Ferdinand Braudel Center. 《<http://fbc.binghamton.edu/comment.htm>》.
- Zheng, Yongnian. 1999. *Discovering Chinese Nationalism i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East Asian Discourse’ in Korea and China:
Interrelationship, Major Issues and Appraisal

Koh, Sung Bin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s, College of Law and Politic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East Asian discourse, East Asians have been preoccupied with “a dream for the strong nation-state” in the past century that specifically accounts for the secularized concept of modernization, “the wealth and power of the nation-state.” But rising above the dream is more desirable in both bringing peace to the region and helping carry the grand project of 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through the 21st century. This is an integration initiated from the periphery (weaker states) to the center (strong states), and an integration which differs from the past Chinese empire and the Japanese Greater-East Asian Co-prosperity Sphere.

In conclusion, it is the author's firm belief that the East Asian discourse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overcoming the strong nation-state myth, thereby paving the way for East Asian integration in the post-Cold War era. For the full materialization of the spirit of the East Asian discourse, the essential component is continuous dialogue among intellectuals from throughout the region to gain and improve a horizontal perspective among them and to overcome the obsolete and redundant geographical concept of the nation-state. The East Asian discourse will therefore provide a communication network to support active intellectuals in their striving to provide an academic framework capable of supporting the regional positiv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Key words: East Asian Discourse, Critical intellectuals, Post-modernism,
Post-centralism, Conception of New East Asian Regional Order

